

스위스 은행 아카이브즈 : 최근의 성장*

Josef Zwicker (Switzerland)**

오 명 진 역***

기업의 발전과 아카이브즈 관리를 다루는 본 세미나에서 스위스 은행의 영구기록 관리체계에서의 최신의 성장들에 관해 왜 얘기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에서 유용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서이다.

1. 은행 부문은 스위스 경제의 중요하고도 두드러진 일부로서 상당한 정도의 흥미를 줄 만하다
2. 최근 은행 아카이브즈 체계에서 주목할만한 발전계기가 있었다.

* 본 논문을 포함하여 이하 특집으로 게재된 4편의 논문은 정부기록보존소 이상민 전문위원이 EASTICA로부터 본지의 번역계재를 허락받았습니다. 한국어 번역출간을 승인해 주신 EASTICA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수고해주신 이상민 전문위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원제: Bank Archives in Switzerland: Recent Developments

** 이 내용은 대부분 Silvio bucher, Jürg Hugmann, Petrick Halbeisen, Traud Löbert가 쓴 간행 및 미간행 글들에 기초를 둘 뿐 아니라 스위스 은행가 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의 관련 문헌들도 참고하고 있다. 몇 개의 인용문의 원문은 독일어로 되어 있다.

Record는 기록, Archives는 영구기록 (단, Archives가 기관을 의미할 때에는 아카이브즈로 표기), Document는 문서로 번역하였다.(역자 주)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3. 일반적으로 은행 아카이브즈는 민간 부문의 아카이브즈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도입에서 스위스 경제에서 은행의 중요성과 은행 아카이브즈에 관한 법적 체제를 짧게 다룬다.

본문에서는 1990년 즈음 이래로 스위스 은행 아카이브즈의 성장을 묘사하고

- 내부로부터 은행 아카이브즈를 장려하는 모태를 가졌던 1990년의 상황
- 거의 역동적인 기세로 일하였던 1990년대 중반과 그것들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은행들에서 기록관리 체제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민간 회사들이 설립할 아카이브즈의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내어 줄 것이다.

도입

스위스에서 은행의 경제적 중요성

스위스에서 은행은 주요한 경제부문들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2000년도에 GDP의 약 11%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화학약품산업에서 공급되는 것의 2배 정도이다. 은행은 스위스에서 전체 세금 수입의 약 12% 정도를 생성시킨다. 극단적으로 근로자 1인당 약 30만 스위스 프랑(23만 US 달러)의 고부가가치를 더한다는 점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게다가 스위스 은행은 국가 간 자산관리에 있어 세계의 선두주자

로서 세계화 시장의 약 1/3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때때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스위스로 넘어온다던가 아니면 스위스가 탈세천국으로 비춰진다는 것 등의 경우에서 문제와 비판을 야기한다. 스위스 은행의 국제적인 방침은 인상적이며, 약 60%의 그들 자산은 국외에 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뉴욕, 런던, 도쿄 다음의 네번째로 주요한 금융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만 은행 아카이브즈에 관해서만 다룰 것이다. 그것은 전체 재정 부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또한 보험회사와 수많은 개인 자산관리자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의 은행 시스템은 고도로 집중화되었다. 시장은 모든 은행의 전체자산을 약 2/3정도 책임지고 있는 두개의 (공식적으로는 세 개)의 거대 은행(big banks)이 공유하고 있다. 두개의 거대 은행 외에는 주(Cantonal) 은행 -개별 주의, 주가 소유하는 은행- 이 경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체계에서 현저한 구조적인 변형이 있었던 것은 1990년 즈음 이래였다. 약 10년의 기간에 더 작거나 혹은 지역은행의 수가 약 40%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1990년대 초반의 경기후퇴 때문인데, 이것이 수많은 은행에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두 번째는 IT의 활용이 팔목할만한 투자를 발생시켰고 거대 은행이 보다 쉽게 그들의 작은 동료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차례로 거대 주자들이 그들의 생산성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경쟁이득을 얻게하여 주었다.

은행 아카이브즈에 관한 오늘의 상황은 우선적으로는 두개의 거대 은행과 스위스 국립은행(Swiss National Bank)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스위스에서 민간 아카이브즈에 관련된 법적인 요구사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은행 아카이브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간 아카이브즈의 문화적인 중요성 혹은 기업 문서의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반영할 어떠한 법적인 규범도 없다. 단지 「스위스 채무법(Swiss Code of Obligation)」이 문서화를 진행할 때의 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구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책임성의 원칙 수준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스위스 채무법 32조 ‘상업 회계’는 재정문서가 반드시 -10년간- 보존되어야 한다는 최소 기한을 적용하고 있고 전자적 부기를 위한 규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은행에 관한 법률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에 관한 법」이 있지만 이는 은행 아카이브즈와는 관계가 없으며 아마도 하나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47조는 ‘은행의 비밀엄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즉, 은행은 어떤 사업적 관계 도중에 고객에 관해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밀로 해둘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고객 계좌에 관한 현행 문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 아니라 극단의 경우에는 은행 비밀엄수라는 것은, 역사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보다 먼 과거의 문서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겠다.

본문

1990년대 초기

배경: 리더적인 은행 아키비스트 한사람은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그때, 역사적으로 관련있는 기록의 체계적인 저장소를 의미하는 ‘아카이브즈’란 용어는 은행에서는 낯설은 개념이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회사가 그들의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회사들은 아카이브즈가 정보의 정확한 사용에 결정적이고, 경영을 위한 학습도구로서, 기업 정체성의 수단으로서 혹은 고객 마케팅 도구로서 유익하다는 것에 관한 완벽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언급할만한 재정 혹은 은행 역사에 관한 문서군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쩌다 은행이 아카이브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작았고 순수하게 역사적인 것이었다. 이런 아카이브즈의 몇몇은 그 시작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은행들은 1930년도 이전의 그들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폐기했다. 앞서 언급했던 역사적인 영구기록은 문서의 기록관리쪽에서 진행중이었던 상황들로부터 분리되었다. 논리상 어떠한 전문적인 은행 아키비스트 또한 이때에는 없었다.

그러나 은행 시스템 밖의 주의깊게 관리되던 아카이브즈 안에 영구 기록들이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은 지적할 가치가 있으며 이 기록들은 적어도 은행 역사의 일부를 이룬다. 예를들어 스위스 국립은행과 연방은행위원회 (Federal Banking Commission)의 아카이브의 경우가 그러하다.

스위스 은행의 터무니없는 감소는 확실히 부분적으로는 은행 아카이브즈의 빈약함에 책임이 있다. 은행의 비밀엄수 -또는 그보다도 그

런 신비화는 비밀업수 문화의 특정유형에 들어가겠지만- 는 은행 아카이브가 보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드러났던 상황들은 민간 부문 전체의 아카이브즈들에서 예외가 조금 있었으나 상당히 비슷했다.

시작, 1990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공국에 은행 역사협회(The Association for Banking History)가 설립된 것은 1990년이였다(2000년에 스위스 재정 역사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협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은행 아카이브즈를 세우는 것이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은행 아카이브즈의 설립, 관리, 특수 조직에 관한 몇몇 논문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유럽의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유럽 은행역사협회는 1990년에 설립되었다. 약 5년의 기간동안 그들의 지위, 설치, 기능, 활용에 관해 다루는 은행 아카이브즈에 관한 정기적인 전문가회의가 조직되었다. 협회는 “재정의 역사적 리뷰(Financial historical Review)”라는 저널을 간행하였고 1994년에는 “유럽 은행의 역사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n the History of European Banks)”을 출판하였으며 여기에 스위스 은행의 역사에 관한 많은 분량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0-1991년, 스위스 아키비스트 협회의 테스크 포스가 주와 시에서의 은행 아카이브즈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은행 아카이브즈에 적용할 추천사항과 실제적 조언일 따름이었다. 특히 거기에는 문서의 폐기에 참고할 만한 어떤 지침도 없었다. 게다가 그 문서는 매우 불완전하였으며 “은행에 있는 누구도 확실히 어디에 이런 저장된 기록이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찾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기업 아카이브즈’는 아카이브즈라기 보다는 창고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외부의 연구자들이 은행 아카이브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이 태스크포스가 다루었던 것은

-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은행문서의 간략목록
- 직원과 관련된 은행 아카이브즈의 자료와 구조 설계에 관한 추천 사항
- 역사가에게 은행 아카이브즈를 활용시키기 위한 추천 사항이었다.

이론상의, 이 새로운 출발점은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었다. 거대 은행들은 그들 자신의 아카이브즈 설립에 착수했고 이들이 참고할만한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주었다. 작업은 은행 아카이브즈를 위한 현대적 개념을 입안하는데서 착수하였고 계속적으로 사실을 발견해갔다. 책임을 가진 사람이 상급 부서와 주요 분과의 메인 부서의 부서장을 방문했다. 이 순회방문은 관련된 질문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발견을 했다. 어떤 관리자들은 아카이브즈는 먼지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무언가라고 믿었다. 무엇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란 말인가?

1990년대초에 있었던 새로운 분위기의 일부로서, 은행 역사협회는 은행 아카이브즈의 접근문제를 깊이 다뤘다. 1993년에는 전문가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의 질문들을 명확히 하였다.

1. 은행은 어떤 환경아래에서 독립 역사연구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그들의 아카이브즈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할 책임을 가지는가
2. 은행의 비밀성(confidentiality)이라는 것은 외부의 은행 역사가가

아카이브즈에 접근하는 것을 인정하는 은행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가

3. 법적 견지에서 외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아카이브즈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제한점들을 반드시 기록물 정리작업에 적용해야 하는가

전문가 의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은행은 역사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어떤 책임도 없다. 만약 어떤 사업관계가 끝에 이른다고 하면, 비밀성을 유지할 그 책임은 고객 혹은 그 법적 계승자의 법률적 관심이 유지되는 한도의 공간에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이다.

확실히 1990년대 초반의 모태는 인고의 열매였다. 은행 아카이브즈는 은행 내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일으켰다. 주요 은행들이 진짜 아카이브즈와 실제적인 아카이브즈 조직을 만드는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적인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값진 정보를 제공했고 은행 아카이브즈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생겨나게 하는데 기여했다. 적어도 몇몇 곳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적인 아카이브즈 전문가가 현장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행 역사를 다루는 협회들의 활동들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전문가 사이에서의 아이디어의 교환을 촉진했고 은행에서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 관리하는 활동을 위한 이론적인 분석과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결과물

그러나 열광은 중반에서 희미해졌다. 1991년 어느 은행 아키비스트에 의해 표현되었던 희망 -“기존 아카이브즈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가

을 세대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새로운 아카이브즈를 창조하기 위한 황금의 기회가 되도록 실제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충족되었다. 1996년의 결과가 이를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불완전한 성공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순수하게 은행 부문에서 그러했다. 1990년대 초기의 경기후퇴는 수많은 은행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것은 은행부문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특히 심화되었으며 집중화 과정의 일부였다. 1990년대 중반에 세 개의 남아 있던 거대 은행 두개가 합병을 발표하였고 그것은 1998년에 완료되었다. 국제적인 은행무대에서의 경쟁도 보다 강렬해졌다. 은행권에 재조직화와 비용삭감이 요구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기에 포괄적인 은행 시스템의 전산화가 있었고 그 일은 광대한 자본을 소비했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들 또한 은행 아카이브즈의 부상을 더디게 하였다. 이 요인들은 여전히 은행에서 아카이브즈의 중요성에 대단한 영향을 휘둘렀다.

1990년 이후 은행 아카이브즈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성공은 미약했다. 이에 책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의 하나는 “회사와, 왕왕 인식의 완벽한 부족으로 특징지워지는 그들 자신의 역사와의 관계”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행의 비밀엄수가 있었다. 은행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때문 만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 자체는 또한 그것이 실제적·객관적 요구를 넘어서 기밀의 이데올로기, 비밀엄수의 문화를 대신하고 있다. 은행은 경제 내에서 그들

자신을 동떨어진 세계로서 보았다. 이런 비밀주의 문화는 은행외부의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도 역시 우세한 기업문화이며 개별 부서는 서로간에 독립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여론에 영향을 준다. ‘비밀성 대 개방성’의 질문은 어떤 기본적인 방식선에서 고찰되어서는 안되며, 최초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대학을 포함하여 역사연구에서도 은행과 재정의 역사 연구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를 위한 수요라는 맥락에서의 어떤 압력 또한 적었다.

은행에서는 은행 역사를 둘러싼 투명성이 ‘전략적인 PR 목적과 대중과의 신뢰구축에 유용할 것’임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인식이었다. 또한 역사와의 상호작용이 기업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란 의식도, 기업 아카이브즈와 역사가 ‘학습하는 회사’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역시 어려웠다.

지식의 보고로서, 정보와 지식관리의 일부로서 실제적인 아카이브즈의 활용에 대한 부족한 인식 때문에 사업관리와 기업문화간에는 다소의 회색지대가 있었다. 어떤 아키비스트는 ‘고용자가 그들의 상관에서 전달하는 것과 정보적 교환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어떠한 정보나 지식관리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재구성을 통해 차츰 감퇴된다’ 고 하였다.

재정역사협회가 아카이브즈 설립을 은행들에게 확신시키려 했던 시도는 훌륭한 투자였다고 본다. 이것으로 인해 아카이브즈는 은행내에서 효율성 증가를 통해 비용삭감을 이루었으며, 또한 1996년까지의 단지 제한된 결실이었지만 고객 마케팅과 기업정체성 확보라는 점에서

아카이브즈를 통한 경쟁이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

1996-2001

기회의 배경

1996년에 나치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의 행동에 대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작은 중립국이 전쟁으로부터 비도덕적인 이익을 획득했다고 비취졌다. 박해와 몰살의 희생자의 것인 자산들이 어디에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논쟁의 최전선에는 약탈된 금의 교역과 휴면 은행계좌 문제 그리고 훔친 문화유산의 문제가 있었다. 왜 이러한 문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1996년에 제기되었는지 충분히 명쾌하지는 않다. 주요한 이유는 스위스가 전체의 전후시대에서 그 문제에 관해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세계의 재정센터에서 이슈의 단계적 확대와 강한 경쟁 사이의 커넥션 또한 있었을 것이다. 가장 열심인 고소인은 미국상원은행위원회(US Senate Banking Committee)의 의장이었다.

1996년에는 스위스와 스위스 회사들의 행위가 문제가며 그것이 공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해답을 찾으려 도와주는 것 또한 공익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목표는 국가신뢰도를 강화하고 재정센터로서의 신뢰를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1996년 11월 스위스 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concerning the historical and legal investigation into the fate of assets which reached Switzerland as a result of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독립 전문가위원회 스위스 - 2차 세계대전(Independent Commission of Experts Switzerland - Second World War(ICE)을 탄생시켰다¹⁾.

은행 아카이브즈에 관한 결의안의 두 조항은 매우 중요한데

- 회사 아카이브즈를 공개하는 것은, 역사 속에 스위스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기밀성의 책무를 넘어 선행되어진다 (Act. 5)
- 조사를 위한 문서를 파괴하거나 숨기는 것을 금한다 (Act. 4)

그 대신에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 관계된 사람들은 공식적인 비밀엄수에 속박되며 그때는 모든 정보를 전문가적인 재량을 가지고 취급할 것이 요구된다(Act. 3).

이 연방 법령은 2001년 말까지로 제한되었다.

은행과 다른 회사의 아카이브즈와 관련된 조항들은 유별나게도 상당히 관련되었다. “1945/1946년 이래로 사법에서는 비교할만한 공공법의 간여가 없었으며, 스위스 때 -연합군으로부터의 압력 아래인-에는 독일 재산을 동결하고 등록할 것을 강제하고, 약탈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1997년에 작업을 시작한 독립전문가위원회가 발견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다. “스위스 회사 아카이브즈들의 상태는 매우 상이하며, 대부분의 아카이브즈 자료는 단순히 어떤 형태의 색인도 없이 쌓여있다. 기록의 관리는 자주 중단되거나 감소했다. 따라서 회사의 기억은 사라져 갔는데 이는 자신의 역사에 관해서 뿐 아니라 기록관리의 상황에 관한 지식과 역사적인 문서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 독립전문가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www.uek.ch>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전개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많은 회사들이 중요한 기업의 기록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은 꽤 인상적인 사실이다. 언제나 거기에는 노동인구와 개별 노동자가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중요한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심성을 이용해 아카이브즈 소장물을 구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아카이브즈만이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로서 발견되었다”. 때때로 자원이 되는 자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떤 표준화된 검색도구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쌓여져서” 있었다. “어떤 주요한 회사의 아카이브즈에서는 회사의 역사가 전문적인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해서 또 어떤 아카이브즈는 이러한 상황은 무시된 채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버려지거나 묶여있다.” 이러한 진술들은 은행아카이브즈에도 적용된다.

대체로 은행들은 독립전문가위원회와 협력했다. 그들은 그들의 아카이브즈를 설계하고 조직하려고 애썼고, 그것이 사용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때에 수천명이 단지 그 일로 고용되었다. 1997년 말까지 백 킬로미터 이상의 서류가 조사되었다.

특별한 활동들

이제부터는 두개의 거대은행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은행 아카이브즈의 관계자들이 스위스와 나치독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에 관한 과업을 해결했는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광대한 량의 문서들이 관계되었다는 것을 언급해야 겠다. -실제로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는 폐기단계의 문서들은 폐기가 금지되었다. 또한 천이백만의 문서들이 마이크로필름화 되거나 스캔되었

으며 십억의 전자문서가 있었다.

거대은행에서 파일들은 한곳에 모여있지 않았고, 어떤 은행에서는 파일들이 삼백 여 곳의 다른 위치에 있는 이천 이백 개의 아카이브즈 룸에 흩어져 있었다.

첫번째 단계는 그 자료들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의 비 집중화된 파일에 대한 책임성을 중앙 집중화된 아카이브즈 관리 시스템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기록과 문서관리에 수반하는 강력한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과정에 관계되었다.

기록관리의 명확한 전통이 없듯이 가시적인 어떤 기록관리 체계 또한 없었다. 이제 그것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 없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무엇이 상업법 아래에서 법이 정하는 10년의 기간 뒤에 폐기되어야 하는지 말이다.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명확한 문서의 서식(typology)을 정의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은행에서 산출된 것이다. 또한 e-비즈니스 처리와 업무도구로부터 생겨난 데이터들을 장기간 보존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다(이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서 비단, 은행에서 뿐만은 아닐 것이다). 아카이브즈 기록에 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단히 강력한 디지털화작업이 있었다.

거대은행 아카이브즈의 1996년에서 2001년까지의 활동은 아카이브즈 전문기술과 이론의 양 측면에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 회사 아카이브즈의 설계, 조직과 관리

- 기록 관리 체계
- 문서의 유형과 평가
- 메타 데이터의 정의
- 전문입력을 포함하는 디지털화

은행 아카이브즈에의 접근 문제는 단지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것은 명백하게 1996년에서 2001년에 적용되었던 특별법 상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Traud Löbert, Petrick Halbeisen 그리고 Jürg Hugmann은 어떻게 기록관리 정책이 회사에서 소개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그곳은 그런 정책이나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그 작업이 어쨌든 인지되었다는 것이고 회사의 상위 관리급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력을 정의하였다. 또한 아카이브즈를 위한 업무과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은 업무과정의 리엔지니어링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이전에는 전무하였던 곳에서 포괄적인 아카이브즈 계획이 소개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어떤 시스템이 소급하여 생산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아카이브즈 계획이 구성될 수 있을까? Traud Löbert는 그 계획을 설계한 것을 세세하게 서술하였고 또한 실례를 가진 이론과 비교한 뒤에 개념을 수정하였다. 그녀는 첫 번째로 기록을 고객기록과 행정기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고객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장기간 동안 활용하는 기본적인 기록(고객과 은행 사이의 계약,

예를 들면 계좌 개설문서, 위임장 등)

- 중간 기간 동안 활용하는 고객 기록(신용장 일건서류(dossier)는 대개 여섯달 동안 활용, 예금기록은 약 2년, 저당과 어음 발행은 20년 이상 활용)
- 단기간 거래 영수증(특정일의 이체명령 등)

행정기록의 경우에 Löbert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 다시 말해 아카이브즈의 보관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취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크게 나누었다.

게다가 그녀는 내부 은행기록과 예를 들어 공급계약 또는 고용자 레코드와 같은 제 3자간 기록을 구분하였으며 그것들은 “은행 그 자체 또는 그 고객에는 관계없지만 제 3자의 것”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아카이브즈 계획에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가치는 형식론으로서 존속되었다.

아카이브즈 계획의 수립에 있어, 두 번째 시도는 회사내의 기능에 근거하여 보다 실무와 가깝게 구축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실제의 문서 전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 결과는 출처와 기능의 원칙의 혼합으로서 기능적 단위의 기록관리 체계를 세웠다. 이 이론적으로 건설하며 실제적으로도 실행가능한 시스템은 매우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다. IT 응용프로그램이 문서를 분류하기 위한 아카이브즈 계획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것이 중앙집중화된 아카이브즈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이다.

Patrick Halbeisen에 의한 세밀하고 이론적인 보고서는 부분적으로는

Jürg Hugman에 의해 계속되어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Halbeisen의 평가개념은 현행의, 출처지향의 정보관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엄격한 출처적 접근은 은행 아카이브즈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조직의 변동성 때문인데 또한 주의 조직과는 달리 은행에는 어떤 체계적인 문서관리의 기반구조도 없었다. 그러므로 Halbeisen은 은행문서를 평가하고 순서매기기 위한 기초로서 ‘의사결정과정’을 취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평가의 목적이 그 자료가 ‘의사결정과정을 일으키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자료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이론과 조직사회학은 Halbeisen의 평가모델에서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적어도 스위스에서는 새롭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는 확실히, 평가 이슈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강화시켰으며 은행과 회사아카이브즈의 영역을 넘어서도 꽤 관심을 가질만 하다.

“Digitization of historical records at Credit Suisse Group”에서 Jürg Hugman은 아카이브즈 소장물에 관한 투명성을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디지털화와 문서화를 다룬 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보고하였다.

디지털화의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질문은 기록이 기술(description) 혹은 전문(full text)과 함께 문서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부분적으로는 시간의 압력 때문에 전문을 사용할 것이 결정되었다.

디지털화된 시스템의 선택에 있어서 네 가지 주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Credit Suisse Group’이 그 제품 그리고 (또는) 그 생산자에 이미 경

협이 있는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생산자는 이미 함께 일한 적이 있는가
- 제품은 최신의 표준을 반영하는가
- 제품은 회사 아카이브즈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보증하는가

1996-2001의 결과물

다음은 스위스와 국가 사회주의간의 관계를 다루는 비상한 노력들로부터 얻은 은행 아카이브즈의 긍정적이고 매우 주요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은행 아카이브즈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 안정적인 아카이브즈 조직의 설립
- 아카이브즈 자료의 포괄적 구조와 문서화
- 보존기간과 평가기준의 명문화
- 은행 아카이브즈 기록과 은행 아카이브즈 관리에 관한 이론상의 주목할만한 신장
- 전문직원 활용의 대단한 증가
- 전자문서를 장기간 보존 관리하는 활동에 관한 인식의 증가
- 문서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록관리의 방향에서 좋은 출발, 그리고 영구기록을 라이프사이클 관리속으로 통합(예> 거대은행 중 하나가 기록관리 단위를 생성)
- 은행 아카이브즈들의 강도높은 평가활동(독립 전문가 위원회와 포괄적 역사연구에 의해서 은행 내에서 수행됨)
- 은행과 그리고 은행의 역사라는 것이 1996년 이전보다 전체 사회의 일부로서 보다 넓게 인식됨.

Outlook

어떻게 스위스에서 은행 아카이브즈가 발전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쪽에서 보자면, 이곳에는 주목할만한 진보 -위에서 언급한- 가 있었고 그것은 근년 들어 이루어졌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 다른 쪽에서 보자면 발전은 지체될 수도 있었다는 징조가 있었다.

- 은행은 여전히 주목할만한 비용삭감과 간소화의 압력아래 있다. 민간 부문에서 단기주의가 확산되면서 보다 점진적인 소비, 장기적 관점의 정보와 지식관리보다 우세해질 위험이 있다. 이는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손상시키며 그럼으로 기록을 장기간 보존 관리하는 활동 역시 그럴 것이다.
- 은행 아카이브즈의 핵심 옹호자는 더 이상 은행에 있지 않다
- 은행 아카이브즈의 공개는 몇몇의 전통적인 은행시스템 체제의 대표들로부터의 방어적인 반응에 끌려가는 연방법률에 의해 실시될 것이다. 그들은 은행 아카이브즈가 다시 엄격한 통제 아래 접근하는 공간이길 원한다.

나의 의견으로는 미래의 은행 아카이브즈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다.

- 은행은 어떤 범위에서 그들 자신의 역사를 그들의 셀프 이미지와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결정하고 스스로 확신하여 취급할 것을 고려할 것인가
- 은행은 어떤 범위에서 현대 정보지식관리시스템의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이득을 잘 정리된 아카이브즈의 일부로서 인정할 것인가

은행 아카이브즈의 미래는 부분적으로는 연구자들로부터의 수요 또

는 수요의 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대학 수준에서 그럴 것이다. 은행업무와 재정역사 그리고 민간회사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외면당해 왔다.

궁극적으로 은행아카이브즈의 미래 발전은 은행의 기업문화에 달려 있다. 이상적인 기업문화, 즉 사회의 일부로서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구축하고 실제적인 기업문화로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일상 업무를 넘어서 회사와 그 문서 내에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